

첨단산단, 탄소중립으로 도약 나선다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효율화 앞장

2022년까지 70억원 투입 미래형 산단 구현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제조 데이터 및 공정별 에너지 패턴 분석을 통한 생산성 개선으로 전년대비 에너지 사용률이 7.9% 절감돼 약 500만 원의 비용을 아껴 코로나 여파로 수출 및 고용 감소 등으로 위축돼 있던 경영 상황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첨단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단장 황상현 본부장, 이하 사업단)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단은 지난해부터 3년간 총 70억

원의 국비를 투입, 첨단산단 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에 나섰다.

‘스마트에너지’가 한국판 뉴딜 정책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시작된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은 제조혁신 발전과정의 기본단계인 산업단지의 스마트화와 심화단계인 디지털·그린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중 스마트그린산단 10대 핵심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사업은 에너지 절감 등에 관심이 높은 기업을 모집,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통해 지원 여부와 금액 등을 확정한다. 사업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기반 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추이를 파악, 생산 공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 확보와 전력피크 타임 시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단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를 통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 혁신 선도기지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클라우드 기반의 공장에너지효율화(FEMS)와 산단에너지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본격적인 저탄소 그린산단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황상현 본부장은 “국가산업단지 내 에너지데이터를 확보와 더불어 연관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산업단지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이바지할 것이다”며 “내년에도 2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경제 프리즘

가스공사, 해외 그린수소 개발

한국가스공사가 독일 지멘스에너지와 해외 그린수소 개발을 위해 손잡았다.

가스공사는 최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지멘스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 발전 등 안정적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 국내 대용량 그린수소 생산 및 공급 실증 ▲ 수소터빈 발전 ▲ 해외 그린수소 생산 및 도입 ▲ 수소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 수소사업 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7월 체희봉 가스공사 사장의 독일 출장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체 사장은 독일 마인츠 에너지파크의 그린수소 생산 및 천연가스 배관 혼입 현장과 지멘스에너지의 수전해 장비 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기보, 1천억원 우대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경상북도,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도경제진흥원 등과 경북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해 업무협약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보는 경북도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바탕으로 경북지역 지역균형 뉴딜기업, 한국판 뉴딜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총 1천억원 규모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하는 한편 보증심사 완화 등 혜택을 준다.

기보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체계를 마련하고 광주, 대구, 부산, 경남도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 보증을 확대해 왔다.

한화솔루션, 합성가스 공급 개시

한화솔루션은 여수 산업단지에서 외국계 기업이 독점하던 합성가스 공급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1,700억원을 투자한 20만톤(t) 규모의 합성가스 생산공장을 준공하고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합성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생산하는 수소(H₂)와 일산화탄소(CO)의 혼합 기체로 한화솔루션의 주요 제품 제조에 사용된다.

한화솔루션은 자사가 새롭게 합성가스를 생산·공급함에 따라 자체적으로는 연간 230억원의 원가를 절감하고, 여수 산단 기업들의 원료 수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신규 합성가스 시설에 이산화탄소(CO₂)를 반복 재사용하는 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도입했다.

광주경총 “‘캐스퍼’ 양산 돌입 환영”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 이하 광주경총)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신차 ‘캐스퍼’ 1호차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한 것을 환영하고 나섰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국내에 23년만에 지어진 완성차 공장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한 끝에 공장 착공 1년 9개월만에 신차를 생산하는 등 모두가 놀랄만한 역사를 이뤄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판매 사전예약 첫 날에만 올해 생산분량 목표치를 초과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광주형일지리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광주경총은 이번 신차 양산을 계기로 제2, 제3의 광주형일자리 확산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광주형일자리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길 광주경영자총협회장은 “광주글로벌 모터스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광주형일자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품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광주경총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전남농협,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점검

전남농협(박서홍 본부장)이 최근 영광 대마면 농협중돈사업소 방역현장을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농협중앙회 박서홍 전남지역본부장, 영광축협 이강은 조합장, 농협영광군지부 양재영 지부장이 함께 했다. 이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

역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과 함께 차량방역을 실시하는 등 방역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남농협은 국민들의 이동이 많은 추석명절기간(18~23일) 동안 농협 공동방제단 차량 210대를 투입해 가족연병 차단을 위한 소독활동도 실시한다. /우성진 기자



전남농협은 최근 영광군 대마면 농협중돈사업소 방역현장을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을 실시했다. /전남농협 제공



이마트에서 한 고객이 즉석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이마트 ‘홈추족’ 겨냥 가족먹거리 할인전

즉석·신선식품·가정간편식·밀키트 위주

이마트가 집에서 명절을 쇠는 ‘홈추족’을 위한 먹거리 제안에 나섰다.

이마트는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온가족 먹거리 대전’을 열고 각종 즉석식품, 가정간편식, 신선식품 등을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즉석식품의 경우 신세계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 연어, 광어로 알차게 구성된 이마트 키친델리 전체 매출 1위 품목인 ‘프리미엄 모듬초밥 A’를 정상이 대비 3,000원 할인한다. 풍부한 새우살이 특징인 ‘맹글맹글 대왕 새우튀김’도 개당 20% 할인하며, ‘한돈 마늘 돼지 갈비(팩)’ 역시 2,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에 나선다.

가정간편식도 알차게 준비했다. 이마

트는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단 3일 동안 이마트e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피코크 강릉식 짬뽕순두부’를 3,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며, 행사 기간 1인당 1개 구매 가능하다.

이밖에 행사 기간 ‘피코크 김치잡지/치즈불닭 구운 주먹밥’과 ‘피코크 마물로 마카롱’도 행사카드로 결제 시 정상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중 ‘피코크 마물로 마카롱’은 마카롱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한 것으로, 현지 디저트 전문 제조사 ‘매그엠(Mag m)’이 생산을 담당한다.

해양수산부와 손잡고 신세계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신선식품 주요 품목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꽃게’는 20%, ‘국산 데진 문어’, ‘온가족 민물장어’, ‘온가족 바다장어’ 등

은 30%씩 할인하며, 영광 참굴비(10미)도 4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이마트의 이번 대규모 먹거리 할인전은 비대면 명절의 영향으로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각종 먹거리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진행했다.

실제 이마트가 지난해 추석 연휴 전후 1주일 동안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밀키트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밥, 장어, 삼겹살도 각각 15.5%, 89.2%, 29.8%의 두 자릿수 매출신장률을 기록했다.

최화환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명절 이후까지 연장됨에 따라 집에서 끼니를 해결할 이들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이와 같은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알뜰한 쇼핑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